

코로나 방역수칙 없는 해수욕장 열린다

오늘 고흥 남열해돋이 해수욕장 시작 56곳 차례로 개장 3년만에 출입구 체온 측정 없어지고 사전 예약제 사라져

“지난 2년간 불편하셨죠? 올해부터는 해수욕장에서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체온 측정, 사전예약제도 없습니다. 물놀이 사고 조심하면서 맘껏 즐겨주세요.”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5일부터 전남지역 해수욕장 56곳이 속속 개장한다. 특히 해수욕장에서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3년 만에 완전히 해제되면서 피서객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12개 시·군지역 56개 해수욕장이 5일부터 차례로 문을 열고 피서객을 맞이한다. 전남에서 가장 먼저 개장하는 곳은 고흥 남열해돋이 해수욕장이다.

이어 이번 주말인 8일부터 10일까지 보성 울포솔밭 해수욕장 등 21곳이 개장한다. 다음 주 주말

전인 15일까지 31곳의 전남지역 대부분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여행객을 맞는다. 영광 송이도 해수욕장 등 남은 3곳의 해수욕장도 이달 23일까지 모두 문을 연다.

이번 여름부터는 지난 2년간 피서객들을 불편하게 했던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완전히 해제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2020년 여름부터 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해수욕장에서는 피서객에게 다양한 방역 수칙 준수 의무가 부여됐다.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및 음주 금지가 대표적이다. 또한, 해수욕장 출입구에는 발열 체크 부스가 설치돼 입장객 체온을 잰다. 파라솔은 2m 간격을 유지해야 했고, 혼잡을 피한다는 이유로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사전 예약제도 적

용했다. 여수 웅천 해수욕장 등 전남지역 15개 해수욕장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방문객을 맞이했다. 사전 예약자만이 입장이 가능한 탓에 해수욕장까지 와서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고, 곳곳에서 실랑이도 벌어졌다.

일부 자치단체는 해수욕장 상공에 드론을 띄우고 코로나19 확산을 경계했다.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대표적이다. 완도군은 지난해 여름 드론을 띄우고 “파라솔 간격 2m를 유지하라”고 경고 방송까지 했지만, 이런 모습은 올해부터 추억이 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은 국민이 방역에 협조해주셔서 3년 만에 코로나19 방역수칙에서 자유로운, 예전의 해수욕장으로 피서객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며 “방문객들에게는 ‘물놀이 사고에 유의하면서 손 씻기를 수시로 하고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안내하는 것이 사실상 전부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치솔질 이렇게 하세요 4일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열린 ‘새싹들의 치아튼튼교실’에서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직원들이 원생들에게 교구를 이용해 치솔질 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나영주기자mjna@kwangju.co.kr

300일 지난 약 진열·불법 반영구 화장 광주지역 약국·미용업소 등 27곳 적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미용업소와 약국 등이 행정당국에 대해 적발됐다.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지난 5월 30일부터 한 달 간 지역 내 미용업소의 영인신고 여부와 불법의료행위, 약국의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판매·사용 실태를 점검, 불법미용업소 20곳과 약사법 위반 약국 7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

혔다.

적발된 미용업소 20곳은 신고하지 않고 영인(무면허 영인)하거나 의료인 만이 할 수 있는 유사 의료행위(반영구 화장) 등을 한 혐의를, 약국 7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조제용 의약품 또는 한약재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를 받는다.

위반 행위별로는 ▲무신고·무면허 미용업 영인 9건 ▲의료기기·전문약품 등을 사용한 유사의료

행위 11건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또는 한약재 조제·판매·목적 진열 7건이다.

실제 모 약국은 사용기한이 300일이나 지난 전문 의약품을 조제실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기도 했다. 또다른 약국은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 행정처분토록 하는 한편 대표자는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관이 직접 조사한 뒤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김현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정선 광주교육감 ‘실력 광주’ 윤곽

문해력 향상 독서교육 강화 초·중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1호 공약인 ‘다양성을 품은 광주학생 실력향상’ 추진 전략이 제시됐다.

이 교육감은 4일 광주시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정책브리핑을 갖고 “광주학생들의 미래 지향적인 진정한 실력은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인성 역량, 4차산업 사회를 대비하는 디지털 시민의식, 다양한 특기적성 개발, 여기에 기본적인 학력이 어우러지는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규정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3대 목표로 ▲학생 맞춤형 기초·기본학습을 통한 진로 진학 취업 역량 강화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역량 강화 ▲광주교육공동체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다양한 실력으로 미래를 여는 광주학생’을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세부 추진과제는 실력향상 생태계 조성, 초·중 연계 실력 향상, 일반계고교 진로, 진학 교육 활성화, 직업계 고교에 대한 지역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맞춤형 인재 육성이다.

실력 향상을 위한 생태계 조성의 핵심정책은 독서교육 활성화다. 이른바 ‘빛고을’을 권장으로 인증제를 도입해 학생들의 문해력을 높이고 광주형 수업

아카이브와 수업 페스티벌을 통해 성취 기준에 충실한 교육과정-수업-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초·중 연계 실력 향상 방안은 인공지능(AI) 학습 시스템을 활용한 학습진단으로 요약된다. 초교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중학교 AI전담교사 배치, 온라인 사이버 학습상담 앱(APP) 개발 및 운영이 추진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수준을 파악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일반계 고교는 진로진학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진로와 진학 전문성을 강화해 고교-대학 연계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입입학사정관 출신 대입지원관이 추가 배치되고 진로진학지원 연구팀도 운영된다.

직업계고 실력향상 방안으로는 미래산업 수요에 맞는 학과 재구조화, 미래산업 중심의 광주형 마이스터고 전환 및 신설, 빛고를 학생기술봉사단 운영, AI 분야 거점학교 6개교 확대(현재 2개교), 빛고를 직업교육지원센터 설립 등도 추진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다양성을 품은 새롭고 혁신적인 광주 실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앞으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기관과 학교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보다 촘촘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예산은 추정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재 기자 penfoot@kwangju.co.kr

올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6일부터 신청접수 ‘전환대출’도 접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6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학과와 똑같은 연 1.7%다.

교육부는 “최근 높은 물가와 고금리 때문에 힘든 서민 가계를 안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기준금리 인상에도 학자금 대출 금리는 동결했다”고 밝혔다.

대출을 받으려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월 13일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7일까지다.

등록금 대출은 해당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과거에 받았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 신청도 6일부터 할 수 있다.

2009학년도 2학기~2012학년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9만5000명가량이 신청 대상이다. /연합뉴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호남지사 9월 광주 남구청사 입주

광주시 남구는 4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 호남지사가 남구와 임대 계약을 맺고 오는 9월 구청사에 입주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한다. 국시원 호남지사는 올해부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권역별 CBT(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 바뀌면서, 광주 권역 상설시험장을 꾸리고자 남구청에 입주 요청을 했

다. CBT 시스템은 올 하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후 2022년도 의사 국가시험을 시작으로 치과 의사, 한의사, 1급 응급구조사, 조산사, 한약사, 1·2급 보건의료기사, 보조공학사, 의사예비, 치과의사예비, 요양보호사 등 11종의 필기시험이 남구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시원은 지난 1952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CBT 제도를 도입했다. 국시원은 올해 안에 광주·서울·부산·대전·전북·강원·충북·경북 등 전국 8개 권역에 상설시험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